

# ‘한·미 FTA 파고, 자연순환농업으로 넘자’



이 상 길 축산국장  
농림부

지난 4월 2일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었다. 협상 타결 이후 언론에는 온갖 평가들이 넘쳐나고 있어, 어떤 분야는 얼마만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고 어떤 분야는 피해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라는 식의 평가결과들이 보도되고 있다. 집단적으로 FTA협상 타결 자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세상도 곳곳에서 저마다 한마디씩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농업분야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주장들은 우리 농업인들의 걱정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농업분야 협상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개방 폭이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수준이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언론들도 한미FTA 이후에 나타날 피해를 수치화하여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숫자에 너무 매달리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 아니다. 숫자는 예측일 뿐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축산인들, 양돈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한미FTA타결 자체에 대한 불만이나 충격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로운 시련에 맞서기 위해 크게 쉽 호흡을 하여 각오를 다지고, 서로의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현재 여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묘안을 찾아야 할 때다.

나는 그 해답을 자연순환농업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한미 FTA만이 시련은 아니다. 최근 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이 우리 축산업, 특히 양돈업에서는 또 하나의 시련이다. 대형국책사업도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를 얻어내지 않으면 추진하기가 어려우게 현실이다.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중단되고, 축산 주변의 악취 문제는 일선 행정기관의 단골 민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경영은 더 이상의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이다.

## 한·미 FTA 파고, 자연순환농업으로 넘자'

생물계에서 식물은 동물의 먹이가 되어 동물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나머지 영양소는 분뇨로 배설되어 토양미생물의 분해과정을 거쳐 식물의 영양소가 되며, 식물은 다시 동물이나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영속적인 순환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연순환농업은 정의하자면 "자연생태계의 영속적인 물질순환 기능을 활용하여 작물과 가축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농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농업"이다. 좁은 의미로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액비 등의 유기질 자원을 토양에 환원시켜 토양을 건전하게 유지·보전하면서 농업생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농업을 일컫는다.

돼지의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다른 가축에 비해 함수율이 높아 자원화는 물론 악취관리가 쉽지 않다. 그래서 다른 축종에 비해 환경부하가 큰 편이고, 이것이 양돈업에 있어서 자연순환농업의 추진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어차피 피할수 없는 선택이라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축분뇨는 더 이상 환경을 오염시키는 처리해야만 할 골치덩어리가 아니라, 자원화 하면 얼마든지 우리농업에 있어서 blue ocean이 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잘 만들어진 퇴·액비는 화학비료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양질의 자원이다.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퇴·액비는 화학비료에 비해 비용이 저렴할 뿐 아니라, 퇴·액비를 사용한 작물은 생육상황이 좋고 품질이 우수하며, 충분히 부숙되어 잘 만들어진 액비는 살포시에도 악취가 전혀 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가축분뇨의 자원화는 충분한 경제성을 갖추고 있어 오히려 성공하지 못할 이유를 찾기 힘들 지경이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지난해 6월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을 마련하였고,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의 논산계룡축협과 지역조합과의 연계 사례, 충북의 다살림영농조합·도드람양돈조합과 오창·문백농협과의 연계 사례, 전북의 에버그린영농조합이 조사료생산에 자연순환농업을 접목시킨 사례 등 자연순환농업을 선도하는 우수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자연순환농업은 성공을 위해 필요한 많은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품질이 좋은 퇴·액비를 생산·유통함으로써 악취 문제 등 그동안에 퇴·액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들을 말끔히 지워버리는 일이다. 그리고 퇴·액비의 고객들인 경종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양돈농가 여러분들의 실천 의지이다. 물론 정부의 지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연순환농업이라는 공연에 있어서의 주연은 양돈농가이며 정부는 조연일 뿐이다. 지금 자연순환농업의 추진은 우리 양돈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필수조건이다. **양돈**